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2월 4일 (제123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걸럼

놓친 고기는 잊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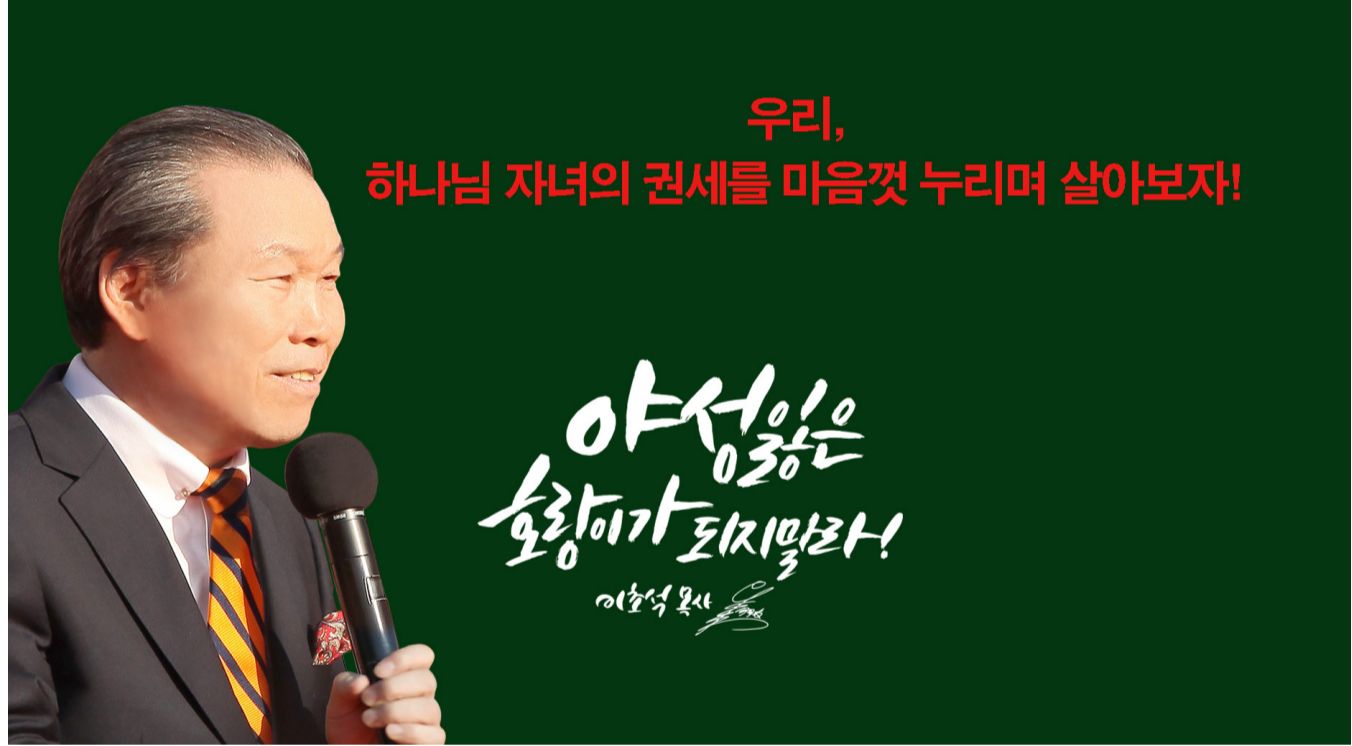
“목사님, 정말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상담을 하겠다고 나를 찾아온 젊은 아이가 의자에 앉자마자 내뱉은 말이 죽고 싶단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애인이 떠났습니다. 진짜 좋아했는데 떠나버렸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한다. 나는 그에게 “그 정도 일로 죽으면 세상 사람 안 죽을 사람 없다. 애야, 놓친 고기는 잊어라. 더 큰 고기가 반드시 온다. 놓친 고기에 미련을 두면 다가올 고기도 놓치게 돼.”라고 권면해도 젊은 아이는 “정말 멋진 여자였는데~~” 하며 여전히 미련이 가득하다. 나는 “이놈아, 미련을 버리라니까. 그래야 더 멋진 여자가 나타나단 말야.”라고 충고해줬다. 그렇다. 분시 남의 잔디가 푸르러 보이고, 놓친 고기가 커 보이는 법이다. 왜냐? 내 것이 안 되었다는 미련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놓친 고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내 맘을 헤아려서 다시 돌아올까? No.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 물 따라 가버린 고기는 절대 거슬러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정신을 차려 얼른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올 고기는 놓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번 고기를 놓치고 정신 차려 더 큰 고기를 잡아 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결혼에 실패하고 재혼했는데 너무 잘 사는 경우도 많고, 한 번 사업에 실패했는데 다른 것에 도전해서 엄청난 성공한 경우도 많다. 그들의 공통점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다시 올 기회를 얻기 위해 오늘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대어가 낚여 신나게 낚시질을 감다가 특 떨어져 나간 경우가 있지 않은가? 살다 보면 거의 다 낚은 고기, 거의 다 된 일들이, 거의 다 이론 업적이 맥없이 특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때 실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좌절하지는 말자. 왜냐? 반드시 더 큰 고기가 올 테니까. 사도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달리는 자가 되자. 그런 자에게 미래가 꽃다발을 안고 올 것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43:18~19).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보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신앙을 배우며 무엇보다 새로웠던 것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있는 믿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갖고 있던 나약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 자녀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러한 믿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목사님이 올해 제시하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보자!’는 슬로건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늘 강조해오시던 말씀이다. 우리 신앙이 좀 느슨해졌다 싶으면 목사님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한다’고 항상 외치셨다. 특별히 코로나 3년을 거치며 침체된 우리 신앙을 원상회복을 넘어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배어있다.

래, 언제까지 이 문제로 전전긍긍할 수는 없다. 목사님께 배운 대로 기도를 충실히 하고 집에 내려가자.’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하나님, 제가 이번 명절에 집에 내려가서 제사에 참석할 겁니다. 그럼 제 눈에 그 조상귀신들이 보이게 해주세요. 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게요.’ 그렇게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며칠을 기도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 너 많이 바쁘다며? 이번 명절에는 올 거 없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 귀신이 먼저 알고 막은 거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찌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4:7).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이루어

이다. ‘이거다’ 하면 돌아볼 거 없이 즉시 행동해야 한다. 아예 ‘다음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행동해야 한다. 목사님이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마지막으로 알고 설교하고, 마지막으로 알고 안수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마지막으로 안다는 것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도 있지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문자 하나라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답장하며, 지금 이 순간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 많은 지금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목사님,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는가.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내 삶이 쌓인 결과



해마다 명절 때면 제사 문제로 갈등하는 가정들을 향해 항상 강조하시는 타협 없는 신앙도 목회 초기부터 늘 강조해오신 말씀이다. 우리 교회처럼 이 문제를 강력히 가르치는 곳이 있을까? 제사 문제로 꾀박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목사님은 절대 위로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만은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맞서 승리할 것을 주문하시곤 했다. 오래전에 형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간증이 있다. 명절 때면 제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아주 작심을 했단다. ‘그

어보려면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보리라!’ 그리고 결심했으면 바로 실천해야 한다.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 즉시 나가 장사한 것처럼, 절대 미루면 못 한다. 약한 마귀는 우리로 미루게 해서 포기시키는 전략을 좋아한다. 다른 무엇보다 내가 결심한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수행한다는 마음 자세가 아니면 수백, 수천, 수만 가지 핑계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해외집회에 나가서 자료를 촬영할 때도 며칠의 시간이 있으니 내일 하지 하는 마음에 미루게 되면 절대 처음 마음먹었던 영상을 얻지 못한다. 그냥 지금

다. 오늘, 지금, 나의 선택과 결심과 행동과 실천이 쌓여 내일의 나,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 여기에 다른 왕도는 없다. 올해 정말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목사님께 배운 것을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내 삶에 적용해보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제목을 내 놓고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보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자. 제발 목사님께 배운 대로만 해보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왕상10:1~13)



선물은 네 길을 운택하게 한다

선물(贈物)을 한자로 보면 반찬 선(膳)과 만물 물(物)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반찬 선(膳)의 구조를 보면 달 월(月)과 착할 선(善)의 조합으로, 이는 아무도 모르게 전하는 착한 마음이란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아름다운 것이며, 상대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곧 선물은 감사한 마음, 죄송한 마음, 존경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는 물건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남편이 내미는 시장에서 산 머플러가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이유가 그것이고, 부모님께 드리는 빨간 내복이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선물과 뇌물이 무슨 차이가 있나고요? 뇌물은 분시 악한 마음, 이를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니 선한 마음으로 하는 선물과는 크게 다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사랑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얻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마음이지요. 마찬가지로입니다. 감사해서, 존경해서, 미안한 마음에서 한 선물이,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잠18:16)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지, 의도된 악한 마음으로 주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여 결국 그것이 되레 울무가 되고 마는 겁니다(출23:8). 그래서 하나님도 뇌물은 안 받는다고 신명기 10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반찬이 좋아야 밥맛이 좋다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들은 스바 여왕은 많은 수행원을 대동하고 솔로몬을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많은 향품과 금, 보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솔로몬 생전에 그렇게 많은 양은 처음이었고, 후에도 없었으며, 질도 또 얼마나 좋은지 역대하 기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향품이 ‘전에 없던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감동해서 스바 여왕이 궁금해 하는 모든 것을 알게 했고, 스바 여왕이 갈 때 원하는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왕상10:13).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선물은 아름다운 선물을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

을 가로채서 외가로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거부가 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형 에서가 문제였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제나저제나 하고 원수 갚기를 기다리는 형이 딱하니 버티고 있었기에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고된 끝에 에서에게 먼저 예물을 보내기로 합니다. 염소와 양, 낙타와 황소를 택하여 앞서 보냅니다.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창32:20) 함이었습

니다. 미안한 마음에서 선물을 보낸 야곱의 예상은 적중



총회장 이초석 목사

했 습 니 다. 정말 형이 분을 풀고 오히려 야

곱에게 와서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창33:12)고 하며, 호위를 자처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선물이 낳은 결과입니다.

또 성경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한다’(잠21:14)고 했습니다. 현대그룹의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 천 마리를 끌고 북한에 갔을 때, 그렇게 두드러도 열리지 않던 북한의 문의 열리고, 최고위원장인 김정일까지 만날 수 있었던 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소 천 마리가 철의 문을 연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왕 선물을 하려면 꼭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대단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막에서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말에 기쁘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선물일진대 사막에서는 오아시스가 가장 값진 것이 아닙니까? 목이 타들어가는 사막에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칭찬도 상대가 감동하게 해야죠.

붕어에게는 지렁이가 제일이고, 메기에게는 미꾸라지가 제일인 법,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예수님께 꼭 필요한 선물을 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아기 예수를 알현하러 간 동방박사들 역시 현명한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의 직분, 속죄에 대한 죽음을 상징한 감동적인 선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어디 그뿐입니까?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면서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주사 악한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2:38).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심으로 교회에 덕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고전12:8~11).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

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마18:13). 하나님이 그 선물을 받으시면 더 큰 선물로 안겨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이니, 이보다 큰 선물이 없지요.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야곱처럼, 스바 여왕처럼 선물을 활용하십시오. 그것이 삶의 지렛대가 될 것이고, 뻥뻥한 삶을 운택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해외 선교를 떠날 때면 자그마한 것들이지만 선물을 준비합니다. 우리나라 전통문양이 그려진 지갑이나 넥타이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저를 돕는 자들에게 넥타이를 직접 목에 매어줍니다. 그리고 꼭 한 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 번치 말고 주를 위해 같이 목을 매는 거야.” 이러면 그들은 감격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또 지갑을 선물하면서 “네 평생에 재물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그들은 명품 지갑을 내던질 만큼 기뻐하고, 물질적인 후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선물은 이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는 곳에 기름을 쳐라

사람의 마음은 밀어붙인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노엽게 한 사람의 마음은 산성 문빳장처럼 열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잠18:19). 그것을 쉽게 여는 방법이 선물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힘들습니까? 시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분명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내가 요새 시큰둥합니까? 오늘 퇴근길에 꽃 한 송이라도 선물해 보세요. “금방 시들 꽃을 왜 사와?” 말은 그렇게 해도 사르르 녹는 마음이 눈에 보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꼬장을 부립니까? 작은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과장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런 메모 하나 끼워서 말입니다. 회사생활이 편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잠19:6).

‘나도 알아.’ 그러지 말고, 오늘 이 말씀으로 옮겨보세요. 그래서 인맥이 형성되어 삶이 편안해지고, 운택해지길 소망합니다.

:: 객원칼럼 ::

:: 오늘의 메시지 ::

평생의 투자, 배움

워런 버핏의 위대한 동업자이자 가치투자자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인 찰리 멩거가 지난해 말 9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멍거는 '배움은 평생의 투자'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자신의 일정 중 많은 시간을 독서에 할애했으며, 수백 권의 전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한 최고의 것을 독서를 통해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혜를 원한다면,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읽고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찰리 멩거는 자신의 관심 지속시간이 길기 때문에, 즉 오랜 시간 집중하는 능력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종종 말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의 성공한 분들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늘 믿음의 선전들에게 배우라고 하셨고, 성공한 이들의 전기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내 것으로 체득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선택했다면 집중하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직접 롤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의 1, 2원칙(1원칙: 돈을 잃지 말라, 2원칙: 1원칙을 잊지 말라)처럼, 목사님께서 신양생활의 원칙으로 '기도를 잃지 말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론과 책을 통해 세상에서 성공한 이들의 지혜를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

게도 매일 총회장 목사님의 육성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직접 배우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배움은 목적이 아니라 성공에 이르는 도구요, 정보이니 특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하시며, 배운 것은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아는 게 있으면 자유의 폭이 넓어지니 배움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고 누누이 가르치시며, 특히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또 '인생이 왜 피곤하냐? 우리에게 맞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하시며 '꿈을 이루려면 인생의 최대 가치 있는 일인 배움에 투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배움의 끝은 실천이니 시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가르치겠다고 내가 배우면 성장하는데 배운 것도 가르쳐야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간증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넘치도록 온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하지만 티머시 빅이 저술한 '워런 버핏의 가치투자전략'의 내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올해에도 평생의 투자를 위해 함께 열심히 배우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 세상을 보는 창 ::

모든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는 3년 기근 속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갈멜산 결전에서 혼자 850명을 상대하여 싸운 후 승리하였지만,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고 유다의 브엘세바로 즉시 도망한다. 그리고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더 걸어서 몸을 숨기고, 로렘나무 아래로 내려가 살 소망이 없으니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할 정도로 지친 몸과 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친 엘리야 선지자를 로렘나무 아래에서 호렘산으로 부르신다. 천사가 가져다준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엘리야는 40주야에 걸쳐 300km 이상의 길을 걸어서 시나이 반도의 호렘산으로 다가갔다. 이 산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야, 모세야... 너는 신을 벗으라"(출 3:4~5)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혼자서 하나님과 마주한 그 호렘(출3:1)산이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의 후반전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칠천 명의 신실한 동역자를 약속하신다. 혼자만 남았다는 불안과 공포,

분노와 한탄이 엘리야의 입에서 터져나오자 하나님은 칠천 명의 동역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아람 왕 하사엘, 이스라엘의 왕 예후,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사명을 주신다. 엘리야는 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 혼자서 아니었다. 신실한 동지들이 그의 옆에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인생은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낮고 험한 골짜기도 있고, 승리하여 기쁨의 환희가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수치도 있다. 인생에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 우리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다. 분명히 기쁨 가득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 준비된 인생 후반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엘리야처럼 다시 일어나 주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소망한다.

이정금 전도사
jungkm@nate.com

제사 지내지 말라

예수 믿기 전 필자는 장남에 장손으로서 집안의 모든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고전 10:20)라는 말씀에 결단하고 제사를 물리쳤다. 집안의 어른들은 난리가 났으나 나의 확고한 결단을 꺾지 못하였고, 결국 집안의 모든 제사는 없어지게 되었다. 이후 당시에는 많이 서운해하시던 믿지 않는 어머니와 동생들까지도 이제는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여 직분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이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겸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싫어하신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출

20:5). 그리스도인에게 제사는 우상숭배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맞서야 할 영적 싸움이다.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으나 그네들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는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이라 거절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명령을 거절하여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어 왕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 우리는 설 명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 이 영적 싸움으로 인해 욕하고 핍박과 폭언 등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하라. 하나님께서 땅의 복과 하늘의 상으로 보상하실 것이다(마5:10~12). **김상욱 목사**



:: 낮은 울타리 ::

내 삶의 목적

20, 30대가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고민거리를 듣게 됩니다. 그중 가장 많은 고민은 일상과 신앙생활의 부딪힘입니다. '부딪힘'이라는 것은 한정된 시간과 체력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를 말합니다.

제 동역자들도 같은 부딪힘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업종 특성상 주말에 가장 많이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할 때 주말은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마음먹었으니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주말엔 일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액세서리 용품을 파는데 주말에 유명한 팝업이 열려 매출과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섬기기 위해 주말 팝업 행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마지막 친구는 대학생인데, 시험 기간에도 자신이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 해내고야 맙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초조하고,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하고 힘들지만 결국 모든 고민 끝에 주님께 약속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 헌신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있고, 더 편하게 가는 길이 있는데도 그걸 선택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읽은 신앙 서적에서 이런 질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가면 실패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은 남보다 느리게 가는 길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삶의 목적이 남들보다 빠르게 가는 것이었습니까?' 이 질문에 제 동역자들은 아마 '아니오'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들 삶의 목적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으니까 말입니다.

요셉의 삶의 목적도 빠르게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총리에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 앞에 바르게 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멀리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주께 둥시다. 그 목적을 잃지 않으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망을 넘어 주 뜻 이루는 삶을 주께 드려봅시다. **장수정**

:: 참된 깨달음 ::

설레는 2024년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은 항상 기대할 일을 정하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물과 용돈을 받는 생일, 명절, 크리스마스가 있을 것이고, 이런 날들 사이에 놀이공원, 영화관람, 친구들과의 모임 등 뭔가 설렘을 가질 일을 끊임없이 계획한다.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에게 며칠 남았는지를 귀찮을 정도로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기다린다.

마가복음 10장에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다. 이는 어린이와 같이 항상 설레는 맘을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듯하다. 예수를 믿으며 천국에 소망이 있는 우리도 설레는 맘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맛볼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계획하고 기도해야 한다.

2023년을 뒤돌아보면 나 자신이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목표를 많이 세웠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애타는 마음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간적인 열심이 앞섰던 한 해였다. 하루에 5장씩 성경 읽기, 시간 정해 기도하기, 자기 계발, 운동하기 등의 일상적인 목표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자기만의 목표를 추가해야 한다.

삶의 설렘이 없고 권태롭다면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4년은 이뤄질 걸 상상만 해도 설렘 충만한 목표를 정하려고 한다. 물론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지만, 세상의 짐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내려놓으려 한다. 세상 걱정 없는 어린이와 같이 설렘 가득한 일정으로 한 해를 계획하고, 이뤄졌을 때의 기쁨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요14:13).

송명국 집사
songmkook@naver.com

내일은 없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하루 살아요~~'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낸 찬양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내일은 없다. 과거도 흘러간 오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늘 최선을 다해 살다 피곤해서 눈을 감았다 뜨면, 또 다른 오늘이지 내일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흘러간 오늘과 다가올 오늘인 것이다. '내일 하자'는 것은 안 하지는 것이고, 후회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오늘을 낭비하는 것이다. 미래 일을 염려한다고 키 한 자, 흰 머리카락 하나 겁게 할 수 없다(마6:27,34).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염려라는, 걱정이라는 마귀가 잡아 먹고 있는 것이다.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노후가 어디 있는가?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노후 준비인 것이다. 돈이, 자식들이 노후를 준비해주는가? 아니다. 마귀가 주는 착각이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자녀를 지키시기에 노후 준비는 오늘 최선을 다해 주님 뜻대로 살고, 오늘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해야 한다. 준비하지 말라, 보험 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준비도, 저축도 된다는 것이다. 걱정으로, 염려로 낭비하는 인생은 저축할 힘도, 여유도 사라져버린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마6:34).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잔칫집에 간다(전7:2, 4). 화장장 화구 문이 열리면 재를 수거해 유골함에 넣는다. 그 모습을 보며 미래의 오늘을 보는 것이다.

저 재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창3:19). 재를 위해 걱정하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 오

늘도 최선을 다해 살면 내일의 오늘이 손뻑 쳐주며 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온다.

어느 분이 "우리 나이에 할 일은 요양보호사뿐이 없어요."라고 말한 걸 들었다. 요양보호사를 편취할 생각이 없다.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이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기도하는데... , 하나님과 총회장 목사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시고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라고 하신다.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마6:10)라는 주기도문 말씀은 신천지 이단에서 말하는 신천지가 아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다. 천국 생활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자기 위로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2024년에는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 2025년의 성공으로 다가올 오늘을 꿈꾸며 살아보자.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자. 할렐루야!

마산예수중심교회 최연식 목사

Good News

어떤 조류학자가 아프리카에만 서식하는 새의 알을 가지고 와서 재미난 실험을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새는 갈대를 가지고 집을 짓고 나서 천적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둥지 밑에 구멍을 뚫고 그 밑으로 드나드는 특이한 행동 양식을 가진 새였다고 합니다. 새알을 인공부화 한 후에 그물망 안에서 생활하며 5대째 인공부화를 통하여 새끼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어난 새끼들을 아프리카로 데리고 가서 자연에 방사를 하고 새의 본능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자연환경이었지만 그 새들은 갈대로 집을 짓고 그 둥지 밑에 구멍을 뚫고 드나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원초적인 본능이 있다는 것을 새의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죄의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최초의 인간 아담이 저지른 원죄의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중국의 유학자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며 후천적으로 교육과 수양을 통하여 선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잘못된 학설입니다. 원죄의 사슬은 스스로 끊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원죄를 청산하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죄의 본능에서 해방되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행복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원하는 만큼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고, 바라던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고, 목표로 하는 무언가를 이루면 행복할 것 같고, 원하던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행복을 좇아 꿈을 꾸고 설 새 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곳에 행복이 있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만남을 통해 행복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망한다'라는 생각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핍에서 비롯된 마음이었습니 다. 만남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었습니다. 이대로 삶이 잘못 흘러가는

것은 아닌가 전전긍긍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보이는 상황이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가르침 따라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는 내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찾아오고 결핍이 사라졌습니다. 내 힘으로 붙잡고 있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만이 내 삶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요.

누군가를 만나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누군가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높은 곳에 올려줄 수 없습니다(합3:19). 평생을 붙잡고 온 신념이 깨졌고, 세계관이 뒤바뀌었습니

다. 기쁜 소식, 진짜 복음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다면 누구를 만나느냐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좇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 없는 행복은 허상입니다. 마셔도 목마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삶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2024년은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소희
so2eej@naver.com

2024학년도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기간:

2024년 2월 18일까지

문의: 02. 533. 9191